

“국비 예산 한 푼이라도 더” 시·도·국회의원들 총력전

예산 심사 막바지 ... 광주시·전남도 서울 상주하며 반영 노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 소위원회(예산소위)가 26일 본격 가동되는 등 정부의 내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따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도는 2-3명의 전담팀을 서울에 파견, 상주하면서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된 광주·전남지역 국비의 증액과 반영에 총력을 쏟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광주시의 경우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예산 295억과 ‘광주형 일자리’의 시작을 알리는 빛그린산단 국가진입도로 신설 81억원 등의 예산 반영을 기대하고 있고,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20억원 등의 예산안 반영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6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는 2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엿새 앞두고 심사를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 본격 심사에 나서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된 광주·전남지역 국비 예산의 반영과 증액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과 잇달아 예산정책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열어 등 예산 확보에 공을 들였다.

현재 예산 소위에는 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포함돼 있다.

광주시는 예산 소위 등을 통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145억원을 비롯해 광양합산업 플랫폼 고용활용사업화 지원 30억원, 광주노사동반 성장 지원센터 건립 20억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10억원, 융합충전소용 수소생산 시스템실증화 52억원 등의 반영을 기대하고 있다.

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60억원,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사업 4억원,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 30억원의 반영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이번 국회 예산 심사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로 추진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 합작 공장 설립을 위한 빛그린산단 국가진입도로 신설 예산도 포함돼 있다. 각 정당의 광주형 일자리 지원 약속을 이끌어

낸 광주시는 현대차와 노동계 등과의 협의가 끝나면 이번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예산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5억원, 국립 에코식물원 조성 5억원,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59억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35억원을 반영하기 위해 뛰고 있다.

또 해양경찰 서부정비장 구축 50억원,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연구지원 30억원, 축령산 모노레일 설치 18억원 등도 국회 예정위에 증액을 건의했다.

이밖에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및 전철화 사업 600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240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304억원 등의 추가 반영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지역 살림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회에 상주하면서 예산 작업을 하고 있고, 지역 정치권의 관심 속에서 대부분 예산의 반영과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가 어촌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에 잠재력을 가진 도내 낙후 어촌·어항 56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업비는 5465억원에 달하며, 전남도는 최소 1차 선정 대상 70곳 중 28곳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영광 하남월항의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3조원 어촌뉴딜 사업 잡아라”

해수부 어촌 혁신성장 사업
전남도, 낙후 어항 개발 기회
1차 70곳 중 28곳 확보 목표

전남지역 어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어촌뉴딜 사업 선정을 앞두고 위해 전남도가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총 3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인 데다 낙후 어항이 많은 전남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낚고 오래된 선착장 등 어촌 필수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 어촌·어항을 통합 개발하게 된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어촌에 기본 인프라와 콘텐츠를 갖추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취지다.

해양레저형·국민휴양형·수산특화형·재

생기반형 등의 사업유형에 따라 전국 어촌·어항 300곳을 연차별로 선정한다. 2019년에 70곳, 2020년 100곳, 2021년 130곳이다.

이들 사업대상지에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3조135억원(국비 70%·지방비 30%), 어촌 어항 1곳당 평균 1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사업 1차 년도인 내년에 우선 70곳을 뽑아 2800억원을 우선 투입한다.

전남도는 1차 선정 대상 70곳 중 최소 28곳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낙후 어촌·어항이 많은 전남도로서는 지역 어촌을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1차 사업 공모에는 도내 15개 시군에서 56개 사업지구로 신청했다.

여수가 11곳으로 가장 많고 신안 8곳, 진도 6곳, 완도·영광·보성 4곳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54개 시군에서 143개 사업지구 신청해 이들과 경쟁해야 한다.

서민심의회와 현장평가는 최근 모두 마무리됐고 해양수산부의 종합평가와 다음달 중순경으로 예상되는 결과 발표만 남아 있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내년 1월부터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방비 부담액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 사업목표량인 28개 지구를 모두 따낼 경우 필요한 지방비는 840억원으로 이중 전남도가 30%, 시군이 70%를 부담해야 한다.

전남도는 내년 예산안에 67억원을 편성했으며 공모사업 지원 시군도 예산을 반영했다.

공모사업 컨설팅을 위한 자문단 22명을 구성해 시군 사업계획서에 대해 자문도 진행중이다.

전남도는 1차 사업목표를 달성한 뒤 전체 사업대상지 300곳 중 150곳을 전남으로 유치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전남도 이상심 심해양정책과장은 “도내 어촌과 어항이 대부분 오지에 있고 접근성과 안전에 취약한 실정”이라며 “어촌뉴딜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낙후한 어촌들이 필수 기반시설을 갖추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카드 수수료율 인하 ... 24만 자영업자 年 214만원 혜택

당정, 중소기업인 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중소기업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한 후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통해

“연 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5면〉

이와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고,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세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압도적 다수의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포함한 매출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한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또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2만곳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Shinsung Motors Safety First Campaign 신성자동차 고객 감사 안전 캠페인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은 신성자동차만의 안전 이벤트!
신성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어 다양한 혜택을 받아주세요!

신성자동차 세이프티 1st 캠페인

- 일시 : 2018.10.15~2018.11.30
- 대상 : 신성자동차 서비스센터 전 지점

안전 주요 항목
무상 점검

엔진오일
업그레이드

Collection
Event

세이프티
서비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신성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시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